

효성 조현준 회장 “나무 아닌 숲 보는 경영 필요”

반세기 효성·삼성 '100년 장수기업' 전략은?

창사 53주년 기념식... “MIT와 손잡고 ‘100년 먹거리’ 모색” 50주년 삼성 이재용 부회장 “AI·5G·자율주행에 집중 투자”

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효성그룹과 삼성전자가 창립 반세기를 맞아 '100년 장수기업'의 청사진을 내놨다. 효성은 기술경영을 중심으로 탄소섬유·폴리카보네이트 등 신소재 개발로 신성장 동력을 삼겠다는 전략을 세웠고,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5세대 이동통신(5G)·자율주행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3일 효성그룹과 삼성전자가 따르면 효성은 지난 1일 서울 마포 본사에서 조현준 회장 등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3주년 기념식을 했다.

조 회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효성이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경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기술 발달과 융합으로 새로운 고객 가치가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앞에 있는 나무만 보는 자세로 해왔던 기술·경영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세상 변화를 폭넓게 보고 숲을 보는 경영 자세로 100년 효성의 역사를 함께 이룩하자”고 격려했다.

효성은 최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연구진과 손잡고 '100년 먹거리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나섰다. 효성과 MIT는 정보통신 기술·신소재·첨단제조·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등 기술·정보 교류를 진행 중이다.

효성은 지난 1966년 11월 3일 만우 조흥제 회장이 그룹의 모태가 된 동양나이론을 설립한 이후, 올해 창립 53주년을 맞았다. 현재는 스파텍스·타이어코드 등 세계 1위 제품을 중심으로 매출의 80% 이상을 수출에서 일으키고, 세계 30개국 100개 이상의 제조 및 무역법인을 운영하는 등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삼성전자도 같은 날 수원 삼성디지털시티에서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기념영상을 통해



지난 1일 서울 본사에서 열린 '효성 창립 53주년 기념식'에서 조현준(가운데) 회장이 최송주·정홍준 상무에게 30년 장기근속상을 수여하고 있다. (효성 제공)

“미래 세대에 물려줄 100년 기업을 만들기 위해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임직원들에게 전했다.

이 부회장은 “기술혁신은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사회와 인류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50년, 마음껏 꿈꾸고 상상하자. 우리의 기술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을 당부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AI, 5G, 자율주행 등 3대 신성장 동력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경영진회의를 통해 기업의 비전을 밝힌 적 있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전 임직원에게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만큼 현재와 소통하는 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로 임하겠다”고 해석했다. /박정옥 기자 jwpark@kwangju.co.kr



여행스케치적금Ⅲ 출시기념 당첨 고객 경품증정식

광주은행, 32명 당첨자 선정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1일 오전 여행스케치적금Ⅲ 출시기념 신규가입 이벤트에서 1등, 2등에 당첨된 2명의 고객을 본점으로 초청해 경품증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여행스케치적금Ⅲ 출시 기념 고객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추첨을 통해 총 32명의 당첨자를 선정했다.

당첨자 1등 1명에게는 국민관광상품권 200만원권, 2등 1명에게는 국민관광상품권 100만원권, 행운상(30명)에는 모바일 주유 상품권 5만원권을 전달했다.

당첨자는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여행스케치적금이 광주은행 대표상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고객님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다양한 금융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적금Ⅲ는 ▲하나투어 지정대리점 여행상품을 이용 시 결제금액의 3% 캐시백 추가지급 ▲광주카드 해외 이용금액의 0.5% 추가 캐시백 및 이용금액 할부 전환 시 수수료 우대 혜택 ▲적금 가입기간 중 환전 시 최대 70% 환율우대 서비스 등 실속있는 금융 혜택을 제공하여 고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호남지역 ‘식품 트라이앵글’ 구성에 온 힘 쏟겠다”

한국마케팅학회 ‘올해의 CEO 대상’ 김흥국 하림그룹 회장

2024년까지 8800억원 투자해 일자리 2000개 만들 것

“전남 300여 양계농가와 함께 호남지역 ‘식품 트라이앵글’ 구성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김흥국(62·사진) 하림그룹 회장은 지난 2일 전남대에서 열린 ‘한국마케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올해의 CEO 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마케팅학회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마케팅의 귀감이 되는 CEO에게 ‘올해의 CEO 대상’을 선정·시상하고 있다.

익산 출신인 김 회장은 사회공헌 마케팅과 지역친화적 경영활동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익산에 본사를 둔 하림그룹은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34개 중 전북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김 회장은 양계 사업을 시작으로 하림그룹을 체계순위 26위까지 끌어올렸다.

김 회장은 만나 수상 소감을 들었다. “11살 때 외할머니로부터 선물받은 병아리 10마리가 제 사업의 시작이었어요.

미꾸라지와 개구리를 잡아 먹어 살찌운 닭들을 시장에서 시세보다 비싼 2500원에 팔면서 사업자금을 마련했죠. 10마리 병아리는 100마리로 늘어났고 저는 학창시절 내내 농장에서 제 꿈을 키웠습니다.”

하림은 창사 30년 만에 국내외 90여 개 법인을 포함한 글로벌 농식품그룹으로 발전했다.

성공 비결에 대해 김 회장은 ‘윤리경영’을 강조했다.

“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축산물을 다루는 만큼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경영 철학 1순위는 ‘윤리’(倫理)입니다. “윤리적 행동을 장려하는 보상은 모든 유형의 사업에서의 성공”이라는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을 제 참고서로 삼았지요.”

김 회장은 소비자에게 값싸고 안전한 육계를 공급하기 위해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발품을 들이고 있다.

하림은 영암 등 전남 청정지대 300여 농



가가 생산한 육계를 거래하고 있으며, 이들 농가는 연 평균 2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최근 국내 곳곳에서 검출되고 있는 야생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 회장은 “오늘도 정읍 도계장을 둘러볼 예정”이라며 자세를 가다듬고 답변을 이어갔다.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걱정과 관

심은 단연 이해가 가지만 전 세계에서 AI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식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양계 농가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소비자들께서 AI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김 회장은 이날 기조강연에서 하림그룹의 ‘푸드 트라이앵글’ 구성 계획을 소개하기도 했다. 하림은 익산 지역에 오는 2024년까지 8800억 원을 투자해 ‘하림푸드 트라이앵글’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하림 익산공장을 방문해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범”이라며 “푸드 트라이앵글 사업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김 회장은 하림의 미래경영에 대해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는 식품사슬의 통합을 위해 농장-공장-시장으로 이어지는 ‘삼장’(三場) 통합경영을 장안하고 실천해오고 있다”며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 국제 곡물유통사업 등으로 발을 넓히며 국내 농식품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사명으로 양계농가, 임직원과 온열정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물가 상승률 석 달째 ‘마이너스’

기름값·교육비용 하락 영향

두 달 연속 이어진 전국 소비자 물가 하락세는 지난달 들어 멈췄지만 광주·전남은 석 달째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10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광주 105.15, 전남 105.77를 기록했다. 각각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 낮아진 수치다.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47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전국 평균 물가지수는 9월(-0.4%)에 1965년 통계 집계 이후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8월(-0.04%) 이후 석 달만에 사실상 오름세로 전환했다.

지역 물가 하락에는 휘발유·경유 등 기름값과 자동차 가격, 고등학교 납입금을 포함한 교육비용이 내려간 것이 영향을 미쳤다.

광주지역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8.9% 하락했고, 전남지역도 8.3% 떨어졌다. 고등학교 납입금은 전남이 100%, 광

주 33.3% 급감했다.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배추가격은 지난해 보다 60% 이상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역 배추가격은 전년 동기과 비교해 65.6% 올랐고, 전남지역 배추가격은 63.0% 인상됐다. 잇단 태풍 피해로 인해 출하량이 줄면서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의 하락세(광주 -1.1%·전남 -1.4%) 속에 배추가격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로또복권 (제1883회)

당첨번호		2등 번호숫자	
9	18 32 33 37 44	22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360,519,525	15
2	5개숫자+보너스숫자일치	52,327,675	65
3	5개 숫자일치	1,340,150	2,538
4	4개 숫자일치	50,000	119,613
5	3개 숫자일치	5,000	1,924,209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